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통상·경제 분야의 협력 : 장애요소 및 전망

정해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Title: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Problems and Prospects*

Author: *Jong Hae Il, KazUIR&WL, Kazakhstan*

Abstract: *Sinc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s the strategic value of central Asia has been growing, major world players such as USA, Russia, China and EU are advancing into Central Asia.*

In particular, since its independence, the world powers competitively has entered into Kazakhstan. Among the countries in Central Asia, Kazakhstan has shown the highest tangible economic development results. Moreover, Kazakhstan, compared to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has the richest natural resources, a superior economy size, the fastest economic growth and a relatively stable political situations.

In addition, Kazakhstan surrounded by Russia, China, and Islamic countries tries to secure export markets of the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by using advantage on the geopolitical benefits and is promot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for stable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South Korea relies on imports for 97% of energies, it has developed economies of a variety of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Therefore Kazakhstan is one of the optimal economic cooperation partners for South Korea. Also South Korea can transfer know-how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a short period of about 50years to Kazakhstan. And it is a good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expand its economic influence in various regions of Russia and Central Asia, including Kazakhstan.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increase investment for Kazakhstan and closely cooperate in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also it needs to maximize synergie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transfer of skills and experience needed to diversify Kazakhstan's industrial structure.

Keywords: *Kazakhstan economic development,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South Korea - Kazakhstan Economic Cooperation*

1. 서론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시기 세계경제의 변방에 불과하였으나, 소연방 붕괴 후 ‘신 거대게임 중심지’, ‘유라시아의 발칸’, ‘유라시아의 심장부’, ‘신 실크로드로의 부상’ 등과 같은 전략적 의미를 가지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이제는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세계 주요국들의 전략적 이해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지역의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의 석유·가스 자원을 보유하여 새로운 에너지자원 공급지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주요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어 유망한 상품 수출시장 및 투자대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 및 운송의 교차지로 점차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브릭스(BRICS) 4 개국 가운데 브라질을 제외한 러시아, 중국 및 인도와 인접해 있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라시아대륙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란 점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 지역의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강화는 물론 다자협약체제 구축, 에너지·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한국도 이 지역을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 부여하고 있다[1].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16일 독립 이후 석유, 천연가스 자원 등 경제적 측면 이외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경쟁적으로 세계 강국들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며, 중앙아시아 최대 영토를 보유한 자원부국으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성장이 주춤하였으나 여전히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역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정국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 외에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중국 및 회교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접국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자국의 원유·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대외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외교적 허브국가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2]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한국에게 있어서도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확보 동시에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로의 수출 확대와 경제이익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다.

2.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 및 경제 관계의 발전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1992년 1월 28일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외교를 수립하였고, 이후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친밀성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 전략과 막대한 에너지·천연자원의 부존은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정치·경제적 관심을 제고시켰다. 실제로 양국은 정치 지도자 및 고위급의 잦은 교류를 통한 통상경제협력 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 Nazarbayev) 대통령은 독립 이전인 1990년 11월 23일 이미 구소련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독립 이후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독립 이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995년, 2003년, 2010년, 2012년 네 차례 한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였으며, 한국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이후, 2009년, 2011년,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세 차례 국빈으로 방문하였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외 정부 고위급 인사의 교류는 약 50회 이상 이루어 지고 있다.[3] 이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양국의 관계는 경제·통상분야를 중심으로 문화, 사회, 교육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까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는 1992년부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주창해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한 다자협력을 주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 본격화된 고유가로 에너지 안보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면서부터이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자원 외교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카자흐스탄과의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확대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석유·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며,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수출시장 확대 및 해외투자지로서도 유망한 지역이기 때문이다[4].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주요 협력이 시작되었던 정상회담은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다. 여기서 카스피해 유전, 브레노브스코에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 등 양국이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원자력 발전 기술, 방사선 치료 기술 등을 공동연구 개발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2012년 8월까지 매년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할 정도로 정상들간의 친분을 돈독히 하면서 양국관계가 한 단계 높게 발전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 중순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에서는 양국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시킴으로써 표면적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활동 범위가 지역 및 세계 차원으로 다양화되고 경제·문화 영역에서 정치·외교·군사·안보 분야 등 민감한 분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협력관계는 경제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국 정상이 2009년 사업시행을 합의한 이후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이 건조사업으로 건설에 참여하여 2012년 9월 13일 착공식을 가진 약 45억 달러 규모의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이 착공식에는 양국 대통령이 아스타나에서 인터넷 이원중개를 통해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5] 그 밖에도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잠빌 해상광구 석유탐사사업, LG화학이 주도하는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 등 많은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석유공사, LG상사, LG전자,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동일하이빌, 국민은행 등 300개 이상의 기업이 석유·에너지, 광물, 전자통신 및 IT, 자동차, 건설, 플랜트, 석유화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2년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 총 누계액은 약 19억 3천 3백만 달러로 카자흐스탄 투자국 중 상당부분(2011년 1분기 13위 기록-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을 차지하고 있으며[9] 2012년 한국의 카자흐스탄과의 교역액은 수출 약 76억달러, 수입 약 38억 달러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10].

3.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발전의 장애요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 및 경제분야의 지속적 협력 증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리적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과 북한과의 국경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실질적인 섬나라인 한국과는 직접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으며 비행기로 약 6시간 30분이 걸리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육로는 한국의 서해를 거쳐 중국을 통과하거나 한국의 동해를 건너 러시아를 통과하는 두 가지 방법

뿐이다. 이로 인해 한국 입장에서는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직접 석유나 가스를 수입할 수 없는 실정이며, 만약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연결한다 해도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인 카스피해 인근에 집중해 있는 유전에서 한국까지 직접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경제성 또한 떨어진다. 그리고 한국은 더욱 근거리의 러시아라는 자원부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자원을 한국으로 수입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제품의 수출을 위한 물류운송 또한 현재 중국을 거쳐 운송되고 있으므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과 운송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속성이 많이 제한되어 그만큼 경쟁력을 잃고 있다.[6]

두번째 양국의 경제협력의 주요 장애요소는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경제대국 중국의 존재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4개국과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한 군사안보분야의 연대를 바탕으로 경제분야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6년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1억 6백만톤 규모의 카자흐스탄 첸키약 유전의 60% 지분을 확보한 이후, 2005년 41억 8천만 달러에 페트로카자흐스탄 인수, 카자흐스탄의 아타수(Atasu)와 중국 서부 알라산코우(Alashankou)를 잇는 986km의 파이프라인 설치, 운영 등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자원 수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값싼 각종 소비재 등을 포함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액이 2006년 기준 약 36억 달러에 달했으며 매년 급속한 수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2006년 수출액 3억 2천만 달러의 10배 이상의 액수로 한국과 중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수출액의 격차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품목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의 주력품목인 전자, 건설 등 일부 품목에서 중복되는 경향을 점차 보이고 있다. 또한 갈수록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품목 이외, 자동차, IT,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불리한 면도 존재한다[1].

세번째 주요 장애요소는 카자흐스탄의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수요층을 들 수 있다. 한국 제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일정한 내수기반과 주변으로의 수출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수요는 인접국인 러시아로의 진출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록 2009년 11월 27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이 관세동맹협정에 서명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카자흐스탄에서는 관세동맹의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다.[7]

네번째 장애요소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의 투자부분이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한 산업다변화와 현대화를 국가경제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국의 투자형태는 자원개발, 부동산, 서비스분야, 건설, 금융, 무역, 교육 등 카자흐스탄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를 보이고 있다. 다행인 점은 국내의 전자, 자동차 기업들의 현지 공장 설립 등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구소련식 행정체제의 잔존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리의 지연, 일부 부패로 인한 투명성 감소, 노동허가 및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제재 등 각종 규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은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투명성 등에 대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 한계로 인해 중개인 등을 통해 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4.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발전의 전망

앞서 언급한 일부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의 13배에 달하는 세계 9위의 거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로 카스피해 인근의 유전지대 이외 많은 지역에서 지하자원에 대한 탐사가 진행 중으로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석유 및 천연가스 유전을 비롯한 각종 광산의 개발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약 97%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카자흐스탄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지 않더라도 개발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입을 통한 2차적 에너지 수입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한국으로 우라늄, 철강 등 다양하고 많은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훌륭한 공급처가 카자흐스탄이다.

에너지협력 이외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상품판매와 수출증대를 꾀할 수 있다. 이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시 3국 관세동맹으로 약 2억명에 가까운 소비시장이 생겨났고, 기타 독립국가연합(CIS)들과 인접 동유럽에 대한 수요를 감안한다면 상당한 소비시장을 확보한 셈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자, 자동차, IT 등 주력산업에 대한 점진적 현지 제조업 진출도 가능하며 수출 시장으로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진 지역이다. 더불어 아직 카자흐스탄은 도로 등 각종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건축, 토목, 플랜트 등 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관련 업체들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카자흐스탄의 일부 도로공사와 발전소 건설 등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업이 진출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의 정치상황도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며,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개방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정

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엘리트정치 집단이 각종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경제협력의 상대국 정상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투자유치와 해당 경제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결정해 나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도 많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의 정상 또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직접투자와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8]

마지막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좋은 환경은 구소련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이 약 10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양국의 경제협력의 중개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진행해 주었고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 및 각 분야의 협력에서 고려인의 역할은 더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들은 비교적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인사들이 많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경제협력은 몇 가지 장애요소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경제협력이 양 국가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자원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도입을 통한 산업의 다각화가 절실하고 아직 취약한 인프라와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7%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지만 전자, 자동차, IT, 건설 등 제조업과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달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한국은 약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해 주는 유일한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노하우도 한국은 카자흐스탄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전수해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동과 서를 잇는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에 있다. 이는 한국이 카자흐스탄으로의 진출을 통해 사방으로 그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 긴밀히 협력하고,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의 전수를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재영, 박상남 편저(2007),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김일수 외(2008),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윤성학 외(2011),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이재영(2006),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협력방안: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0권 4호).
5. 텡기스 뉴스 (http://tengrinews.kz/kazakhstan_news/prezidentyi-kazahstana-i-korei-zapustili-stroitelstvo-balhashskoy-tes-220246/). <Президенты Казахстана и Кореи запуст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алхашской ТЭС> (검색일 : 2013. 9. 13).
6. Laumulin Murat 외(2011), “III International Forum Korea-Central Asia”, *Global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김영진(2010),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간 관세동맹-카자흐스탄에의 영향>,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8. 조영관 외(201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
10.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